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시마네 이모저모

Vol. 73

たたら

この冬、ペーパーナイフを使おうと思ったのは
鉄を超えて地域を支える——たたら製鉄と田部家の物語
菅谷たたら高殿で、歴史の響きに耳を澄ます

다타라

이 겨울, 페이퍼 나이프를 써 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철을 넘어 지역을 지탱하다 — 다타라 제철과 다나베가의 이야기
스가야 다타라 다카도노에서 역사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다.

이 겨울, 페이퍼 나이프를 써 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곽 소헌

정월 전후로 운난시 요시다초는 폭설에 덮여 있었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논밭은 온통 설경이었다. 좁은 산길에는 발자국도 없고 오가는 자동차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칼날 같은 찬바람이 뺨과 코끝을 찌른다. 영화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에 등장한 제철소의 모델이 된 장소가 지금 이 고요와 혹한의 땅에 남아있다.

이 지역에서는 한때 '수수께끼의 철 만들기'라고도 불리는 '다타라 제철'이 행해져왔다. 다타라 제철은 사철과 목탄을 화로에 넣고 사흘에 걸쳐 송풍과 불 관리를 이어가며 철을 정련하는 전통 기법이다. 방대한 노력과 자연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 공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 번 단절될 뻔하였으나, 일본도의 원료가 되는 '다마하가네(옥강)'를 만들어내기 위해 장인들의 손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다타라 대장장이 공방을 견학하는 동시에 약 15cm의 대못 한 개를 이용해 페이퍼 나이프를 만드는 체험을 실시했다. 고바야시 씨의 지도 아래 못은 화로 안에서 주황빛으로 물들고 망치질을 거듭하며 점차 형태를 바꿔간다. 일렁이는 불꽃과 규칙적인 타격음에 휩싸여 시간의 흐름이 한층 완만해지는 듯했다.

공방에는 연간 대략 100여명의 폭넓은 연령층의 체험자가 방문하며

この冬、ペーパーナイフを使おうと思ったのは

郭小軒

正月前後の雲南市吉田町は大雪に包まれ、私たちが到着した時も、田畑は一面の雪景色となっていた。細い山道には足跡もなく、行き交う車の姿もない。刃物のような冷たい風が頬や鼻先を刺す。映画『もののけ姫』に登場する製鉄場のモデルとなった場所が、今もこの静寂と厳寒の地に残されている。

この地域ではかつて、「謎の鉄づくり」とも呼ばれる「たたら製鉄」が行われてきた。砂鉄と木炭を炉に入れ、三日にわたって送風と火の管理を続けながら鉄を精錬する伝統技法である。膨大な労力と自然資源を要するこの工法は、時代の変化とともに一度は途絶えかけたが、日本刀の原料となる「玉鋼」を生み出すために、職人たちの手によって受け継がれてきた。

今回の訪問では、たたら鍛冶工房を見学するとともに、一本の五寸釘からペーパーナイフを作る体験を行った。小林さんの指導のもと、釘は炉の中で橙色に染まり、槌で打たれることで少しずつ形を変えていく。揺れる火と規則正しい打撃音に包まれると、時間の流れがゆるやかに感じられた。小林さんは一本一本を丁寧に確認し、細部まで磨き上げていく。その作業着には、火の粉で焼けた無数の跡が残っていた。

工房には、年間およそ100人の幅広い年齢層の体験者が訪れ、女性や外国人の姿もある。完成したペーパーナイフには防錆処理が施され、日常の中で実際に使える道具として手元に残る。

まだ余熱の残るペーパーナイフに触れながら、私は、自分が長い間、手紙を書いていないことに気づいた。社会に出てから、手紙を書くという習慣はいつの間にか生活の中から遠ざかっていた。「消費のダウングレード」が繰り返し語られる現在、生活における儀式性は、あってもなくてもよい贅沢のように受け取られがちである。しかし、効率だけを追い求め、「必要なもの」だけを選び続けた先に、私たちの生活はどこまで豊かであり続けられるのだろうか……

小林さんによれば、釘からペーパーナイフを作る工程は、鍛造技術を身につけるための基礎的な練習の一つでもあるという。広島出身の「被爆二世」であり、刀鍛冶の見習いでもある小林さんは、鉄の歴史と技の継承を語ることを通して、対立ではなく、学びと創造を選ぶことの大切さを語っていた。

『もののけ姫』の世界とは異なり、現実の製鉄や鍛造は、かつては男性が担ってきた分野であった。しかし現在では、女性が見習いとして作刀の世界に足を踏

그중에는 여성이나 외국인의 모습도 보인다. 완성된 페이퍼 나이프에는 방청처리가 되어 일상 속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손에 남는다.

아직 잔열이 남아있는 페이퍼 나이프를 만지며, 나는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쓴다는 습관이 어느샌가 생활 속에서 멀어져 있었다. '소비의 다운그레이드(*최근 중국의 소비 트렌드로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치품 구매를 줄이고, 고가 제품 대신 가성비가 높은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합리적 소비 경향을 뜻함)' 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오늘날, 생활에 있어서 의식성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치처럼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효율만을 좇아 '필요한 것' 만을 계속 선택해 온 끝에,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디까지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고바야시 씨에 의하면, 못으로 페이퍼 나이프를 만드는 공정은 단조 기술을 익히기 위한 기초적인 연습 중 하나라고 한다. 고바야시 씨는 히로시마 출신의 '피폭2세' 이며 도공 견습생으로, 철의 역사와 기술의 계승을 이야기하며, 대립이 아닌 배움과 창조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했다.

'모노노케 히메' 의 세계와는 달리 현실의 제철이나 단조는 한때 남성이 담당해 온 분야였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이 견습생으로서 칼 제작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예도 보이고 있다. 시대는 변해 가지만, 사람과 불, 그리고 철과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분명 페이퍼 나이프가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시간의 무게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수작업과 사소한 의식성이야말로 문화를 역사 속에 가두지 않고, 사용되고 기억되는 일상으로 살며시 데려오는 것이 아닐까.

고바야시 노리오씨
小林憲生さん

み入れる例も見られる。時代は移り変わっていくが、人と火、そして鉄との関係は、新たなかたちで静かに受け継がれている。

確かに、ペーパーナイフはなくても困らない。しかし、それを自らの手で作る過程を通じて、時間の重みを確かに感じ取ることができる。こうした手仕事とささやかな儀式性こそが、文化を歴史の中に閉じ込めるのではなく、使われ、記憶される日常へそっと連れ戻してく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철을 넘어 지역을 지탱하다 ——다타라 제철과 다나베가의 이야기

비앙카 챈

다타라 제철은 사철을 원료로 하여 점토로 만든 용광로에서 철을 생산해 내는, 예로부터 일본에 전해져 내려오는 제철법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철은 품질이 뛰어나 농기구와 생활용품은 물론, 도검 등을 통해 무사 문화를 지탱해 왔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에 근대적인 용광로가 도입되기 전까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의 약 70%는 주고쿠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마네현 오쿠이즈모 지방에서는 '다타라 고산케(삼대가문)'라 불리는 다나베가·사쿠라이가·이토하라가의 세 가문이 전국 철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적 존재가 다나베가입니다. 다나베가는 무로마치 시대(1336년~1573년)부터 철 생산에 종사해 왔으며, 고산케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나베가가 거점을 두고 있는 운난시 요시다초를 방문하여, 다나베가에 대해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운난시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인

鉄を超えて地域を支える——たたら製鉄と田部家の物語

ビアンカ・チャン

たたら製鉄は、砂鉄を原料に粘土製の炉で鉄を生み出す、日本に古くから伝わる製鉄法です。高度な技と長い経験を要するこの方法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鉄は品質が高く、農具や生活道具をはじめ、刀剣などを通じて武士文化を支えてきました。

明治期に近代的な高炉が導入されるまで、日本国内で生産される鉄のおよそ7割は中国地方で生産されていました。なかでも島根県奥出雲地方では、「たたら御三家」と呼ばれる田部家・桜井家・絲原家の三家が、全国の鉄生産量の約四割を担っていました。その中心的存在が田部家です。田部家は室町時代から鉄の生産に携わり、御三家の中でも最も古い歴史を持つ家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

今回は、田部家が拠点を置く雲南市吉田町を訪れ、田部家についてより深く知るため、雲南市観光ボランティアガイドの吉川さんに案内していただきながら、田部家の歴史にまつわる多くのエピソードを伺いました。

まず、田部家の特徴の一つが、代々受け継がれてきた名前と称号です。九代当主・安右衛門の時代には、「鉄山益々繁昌、金銀如山、米穀満庫」と記されるほど、たたら製鉄による大きな繁栄を遂げました。この言葉は、経済的成功のみならず、地域社会の安定と豊かさを象徴するものでもあります。こうした功績が認められ、田部家は十代当主の代に松江藩より「長右衛門」の名を賜りました。以後、歴代当主の多くが「田部長右衛門」を名乗り、この名は個人を示すものではなく、製鉄経営や土地管理、地域を支える重責を象徴する称号として、代々受け継がれてきました。

また、1874年には第21代当主が私財を投じて私立田部小学校を設立し、近代的な学校制度が十分に整う以前から、地域の子どもたちに学びの機会を提供しました。これは、産業の発展にとどまらず、人材育成と知の継承を重視していた田部

요시카와 씨의 안내에 따라 다나베가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들었습니다.

우선 다나베가의 특징 중 하나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름과 칭호입니다. 9대 당주 야스에몬의 시대에는 "철광산은 더더욱 번창하고, 금과은 산처럼 쌓이며, 곡물은 창고에 가득하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다타라 제철을 통해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다나베가는 10대 당주 때 마쓰에번으로부터 '조에몬'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이후 역대 당주의 다수가 '다나베 조에몬'을 칭하게 되었으며, 이 이름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제철 경영과 토지 관리, 지역을 지탱하는 중책을 상징하는 칭호로서 대대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또한 1874년에는 제21대 당주가 개인 사비로 사립 다나베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근대적인 학교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지역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산업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과 지식의 계승을 중시했던 다나베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화재로 자택과 주변 지역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거처 재건을 뒤로 미루고 지역 전체의 부흥을 우선시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쿠라이가나 이토하라가의 저택과 비교하면 다나베가 주택은 비교적 검소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현재도 남아 있는 다나베가 흙 창고 건축들에 잘 드러나 있으며, 지역의 안정과 재생을 최우선으로 여겨 온 다나베가의 가치관을 오늘날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타라의 정신은 지금도 지역의 풍습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나베가에서는 약 350년에 걸쳐 매년 정월에 이 지역만의 독특한 떡메치기가 행해져 왔습니다. 이 떡 메치기에서는 떡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손씻는 물도 사용하지 않으며, 도구만을 사용해 모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습기와 수분을 꺼리는 다타라 제철의 성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떡메치기 노래와 힘찬 구호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절굿공이를 위아래로 휘두르는 독특한 방식으로 약 100kg의 떡을 만들어 냅니다. 청결함과 재료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태도 등, 다타라 제철과 통하는 가치관이 이 풍습 속에서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다타라의 불이 꺼진 지 약 100년. 한때 단절되었던 '다타라 문화'를 미래로 계승하고, 과거 다타라로 번성했던 이 땅에 다시 빛을 비추기 위해 다나베가는 다타라 제철의 정신을 현대로 되살리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다나베 그룹은 '다나베 다타라노사토'를 설립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타라 제철의 부흥과 사토야마(마을 숲) 재생을 목적으로, 제철을 축으로 농업·관광·음식·숙박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와 식량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자립형 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다나베 조에몬'이라는 이름 아래 계승되어 온 책임과 정신. 다나베가의 발자취는 다타라 제철을 단순한 역사 산업이 아니라 운난시 요시다초에 뿌리내린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다나베가의 역사에는 여기에서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꼭 현지를 찾아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와 함께 걸으며 그 매력과 이야기를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家の地域への姿勢を示しています。

さらに、火災によって自邸と周辺地域が焼失した際には、自らの住まいの再建を後回しにし、地域全体の復興を優先しました。そのため、桜井家や絲原家の邸宅と比較すると、田部家住宅は比較的質素に見えます。こうした姿勢は、現在も残る田部家土蔵群の建築に表れており、地域の安定と再生を第一に考えてきた田部家の価値観を今に伝え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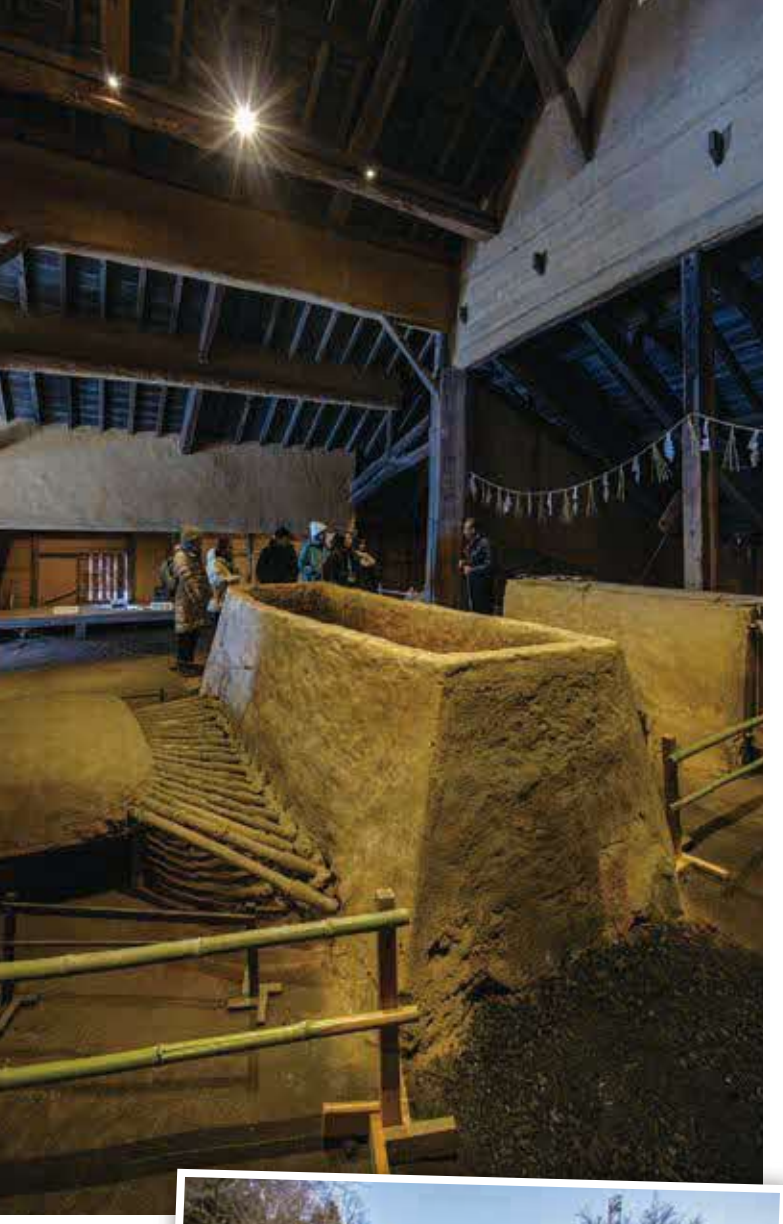
たたらの精神は、今でも地域の風習の中に息づいています。田部家では、約350年にわたり、毎年正月にこの地域独自の餅つきが行われてきました。この餅つきでは、餅に直接手を触れず、手水も用いず、すべて道具を使って作業を行います。これは、湿気や水分を嫌うたたら製鉄の性質に由来するものです。古くから伝わる餅つき唄と威勢の良い掛け声のもと、大勢で杵を上下に振り下ろす独特の方法で、五斗五升の餅がつき上げられます。清浄さや素材を丁寧に扱う姿勢といった、たたら製鉄に通じる価値観が、この風習の中に受け継がれています。

たたらの火が消えてから約100年。一度は途絶えた「たたら文化」を未来へ継承し、かつてたたらで栄えたこの地に再び光を当てるため、田部家は、たたら製鉄の精神を現代に蘇らせる取り組みを始めました。

2021年、田部グループは「たなべたたらの里」を設立しました。室町時代から続くたたら製鉄の復興と里山再生を目的に、製鉄を軸としながら、農業・観光・飲食・宿泊など多角的な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地域の活性化と、食料自給率100%を目指す自立したコミュニティの構築に取り組んでいます。

過去から現在へと、「田部長右衛門」の名のもとで受け継がれてきた責任と精神。田部家の歩みは、たたら製鉄を単なる歴史産業ではなく、雲南市吉田町に根ざした生きた遺産として未来へとつないでいく物語そのものです。

田部家の歴史には、ここでは紹介しきれない数多くのエピソードがあります。ぜひ現地を訪れ、観光ボランティアガイドとともに歩きながら、その魅力と物語を体感してみてください。



스가야 다타라 다카도노에서 역사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다.

원 수

운난시 요시다초의 산길을 차로 구불구불 올라가다보면, 이윽고 스가야 다타라 다카도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다카도노는 일본에 현존하는 유일한 다타라 제철 다카도노입니다. 다타라 제철이란 사철과 목탄을 연소시켜 철을 만들어내는 일본 전통 제철법을 말합니다. 다타라의 중심을 이루는 제철 용광로가 있는 건물을 '다카도노'라고 부릅니다. 다카도노를 중심으로 장인들이 생활하고 작업을 하면서 '산나이'라고 불리는 취락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는 운난시의 다타라 제철의 전성기 때, 텟시(다타라 제철의 경영자)의 명문인 다나베가가 소유하고 있던 중요한 거점 중 한 곳입니다.

도착하니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 생활전승관의 관장인 아사히 미쓰오 씨가 이미 다카도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역사의 여행으로 안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카도노의 입구 앞에는 한 그루의 계수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철을 관장하는 여신인 가나야고신은 백로를 타고 계수나무 위에 내려섰다고 전해지며, 이 때문에 다타라 작업장 주위에는 계수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월이 되면, 계수나무는 싹을 틔우고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마치 용광로 속에서 일렁이는 불꽃처럼 보입니다. 다카도노의 주위에는 관리시설, 생산시설, 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에도시대(1603년~1868년)의 경관이 지금도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렸던 폭설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다카도노 지붕에 남아있었습니다. 녹아내린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 마치 다카도노에 비의 장막을 드리우는 듯합니다. 그 비를 뚫고 우리들은 다카도노 내부에 발을 디뎠습니다. 안은 어스레하고 서늘한 공기에 싸여 있었습니다. 눈이 차츰 익숙해지자 다타라 제철의

菅谷たたら高殿で、歴史の響きに耳を澄ます

袁　帥

雲南市吉田町の山道を車でくねくねと登っていくと、やがて菅谷たたら高殿の姿が現れます。この高殿は、日本に現存する唯一のたたら製鉄高殿です。たたら製鉄とは、砂鉄と木炭を燃焼させて鉄を作り出す日本古来の製鉄法のことです。たたらの中心をなす土炉の覆屋を「高殿」と呼ばれます。高殿を中心に職人たちが生活し、作業を行うことで、「山内」と呼ばれる集落が形成されていきました。菅谷たたら山内は、雲南市におけるたたら製鉄最盛期、鉄師の名門・田部家が所有していた重要な拠点の一つです。

到着すると、菅谷たたら山内生活伝承館の館長である朝日光男さんが、すでに高殿前で私たちを待っており、歴史の旅へと案内してくださる準備をしていました。高殿の入口前には、一本の桂の木がそびえ立っています。鉄を司る女神・金屋子神は、白鷺に乗って桂の木に降り立ったと伝えられており、そのため、たたら場の周囲には桂が植えられることが多いとされています。四月になると、この桂は芽吹き、夕日を浴びて赤く染まり、まるで炉の中で揺らめく炎のように見えます。高殿の周囲には、管理施設、生産施設、生活施設が配置され、江戸時代の景観が今も大切に保たれています。

数日前に降った大雪の名残が、高殿の屋根にまだ残っていました。溶け出した雪解け水が一滴一滴と落ち、まるで高殿に雨の帳を垂らしているかのようです。その雨をくぐり抜け、私たちは高殿の内部へと足を踏み入れました。中は薄暗く、ひんやりとした空気に包まれています。目が次第に慣れてくると、たたら製鉄の核心である炉が姿を現しました。朝日館長は、たたら製鉄の工程を一つひとつ丁寧に説明してくださいました。

たたら製鉄に欠かせない原料は、砂鉄と木炭です。奥出雲地方には良質な砂鉄を含む花崗岩の山々が広く分布しており、木炭の原料となる森林資源にも恵まれています。菅谷たたら山内は、まさにそのような自然環境の中に位置しています。さらに、菅谷川と吉田川が合流することで生まれる風の通り道が、高殿内の送風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立地条件の面から見ても、菅谷たたら高殿は非常に恵まれた場所にあったと言えます。

職人たちは砂鉄を採るために山肌を切り崩した土砂を流水で洗い流し、川に沿って流しました。砂鉄は通常の土よりも重いため、次第に川底に沈殿していきます。こうして集められた砂鉄は乾燥させた後、高殿へと運ばれました。あらかじめ焼いておいた木炭を炉に入れて火をつけ、十分に炉を温めたのち、砂鉄を投入します。木炭と砂鉄を交互に、何層にも重ねていくことで、最終的に「鉧(けら)」と呼ばれる大きな鉄の塊が生み出されます。

この一連の工程において、技術責任者である「村下」は極めて重要な存在であ

핵심인 용광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사히 관장님께서는 다타라 제철의 공정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타라 제철에서 빠질 수 없는 원료는 사철과 목탄입니다. 오쿠이즈모 지방에는 양질의 사철을 포함한 화강암 산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목탄의 원료가 되는 산림자원도 풍부합니다.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는 바로 그러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가야강과 요시다강이 합류하면서 생긴 바람이 통하는 길이 다카도노 내의 송풍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입지조건 측면에서 봐도 스가야 다타라 다카도노는 매우 축복받은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장인들은 사철을 얻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내린 토사를 흐르는 물로 씻어 강을 따라 흘려 보냈습니다. 사철은 보통의 흙보다 무겁기 때문에 점차 강바닥에 침전해 갑니다. 이렇게 모아진 사철은 건조시킨 뒤 다카도노로 옮겨졌습니다. 미리 구워둔 목탄을 용광로에 넣어 불을 붙여 충분히 용광로를 달군 뒤 사철을 투입합니다. 목탄과 사철을 교대로 층층히 쌓아가며 최종적으로 '게라(鎞)'라 불리는 큰 철의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일련의 공정에서 기술 책임자인 '무라게'는 지극히 중요한 존재로, 다타라 제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역대 무라게는 용광로 불꽃의 색이나 높이, 온도를 감과 경험만으로 읽어내 사철과 목탄을 더하는 시기와 양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 기술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집안의 장남에게만 전해져 왔다고합니다. 또한 천칭 풀무 작업도 빠질 수 없는 중노동이었습니다.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 에서는 여성들이 풀무를 밟는 장면이 그려져있지만, 실제 다타라 제철에서는 남성만이 풀무 작업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의 조업은 처음 목탄을 투입한 뒤부터 게라가 완성되기까지 사흘밤낮으로 이어지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는동안 자연스럽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용광로 중앙에서 불꽃이 격렬하게 타오르고 용광로 양단에는 무라게 두 명이 서서 예리한 눈썰미로 불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쪽 편의 풀무에는 작업자들이 서서 전신에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풀무를 밟고 있습니다.

산, 숲, 바람, 물, 그리고 장인들의 지혜와 고된 노동. 그것들이 겹겹이 포개져 인류 산업사에 깊게 새겨질 한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타라 제철은 서양식 제철기술로 대체되어왔지만, 일본도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다마하가네(옥강)는 지금도 다타라 제철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타라의 불꽃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카도노를 눈앞에 마주하니 이곳은 단순히 사적이나 전시시설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엮어낸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과거 사흘밤낮으로 타오르던 용광로의 불꽃은 지금도 조용히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마주하며 시간과 대화해 온 그 기억은 이 산속에서 조용히 울려오고 있습니다.

り、たたら製鉄の要とも言える人物です。歴代の村下は、炉の炎の色や高さ、温度を勘と経験だけで読み取り、砂鉄や木炭を加えるタイミングと量を判断してきました。その技は門外不出とされ、家族の長男のみに受け継がれてきたといいます。また、天秤ふいごの操作も欠かせない重労働でした。宮崎駿監督の『もののけ姫』では、女性たちがふいごを踏む場面が描かれていますが、実際のたたら製鉄では、ふいご作業を担当できるのは男性に限られていました。一回の操業は、最初の木炭を投入してから鎞が完成するまで、三日三晩休みなく続く、非常に過酷な作業だったそうです。

説明を聞くうちに、自然と一つの光景が思い浮かびました。土で築かれた炉の中央で炎が激しく燃え上がり、炉の両端には二人の村下が立ち、鋭い眼差しで炎の様子を見つめています。両脇のふいごには作業者が立ち、全身に汗をにじませながら、懸命に踏み続けています。

山、森、風、水、そして職人たちの知恵と苦労。それらが重なり合い、人類の産業史に深く刻まれる一章が生み出されました。時代の流れとともに、たたら製鉄は西洋式製鉄技術に取って代わられていきましたが、日本刀の製作に欠かせない玉鋼は、今なおたたら製鉄によってのみ生み出されています。その意味で、たたらの炎は今でも燃え続いています。

今日、この高殿を前にすると、そこは単なる史跡や展示施設ではなく、自然と人間の知恵が結びついた象徴のように感じられます。かつて三日三晩燃え続けた炉の炎は、今もなお静かに語りかけてきます。人が自然と向き合い、時間と対話してきたその記憶は、この山あいで確かに響き続けているのです。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s://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시마네 이모저모 편집자: 박서연
발행처: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bunka-kokusai@pref.shimane.lg.jp
発行：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Bianca Chan

Guo Xiaoxuan

Carolina M Miura

Park Seoyeon

Yuan Shuai